

혁신당 “신영대 사태, 일당 독주 구조 참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12일 성명
“공천=당선” 등식 민주당 책임”
무투표 당선 속출 도민 선택권 박탈
수사당국에 전면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신영대 전 의원 선거캠프 전 사무장의 대포폰 사용으로 인한 여론조작·경선조작의 혐의가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결됐다”며 “이에 따라 신영대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는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일당 독점’과 ‘공천=당선’ 공식이 낡은 참담한 결과로 더 불어민주당에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수백 대의 휴대전화와 수천만원의 금품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대리 투표를 유도했다는 사실은 신영대 선거캠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것을 전북도민 상당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신 전 의원은 채수없게 걸렸다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35년 일당 독점의 전북 지역 정치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유린했는지를 도민이 모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그동안 크고 작은 여론조작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받지 않고 문개은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도 뼈 아르게 인식해야만 한다”며 “경선만 이기면 끝이라는 여론조작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이는 민주당 공천장만 거머쥐면 막대기를 쫓아도 당선된다는 전북의 기형적인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본선 경쟁력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 대결 대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조직 동원과 여론 조작이라는 ‘반칙’에 몰두했다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 전 의원의 사례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작된 숫자로 공천장을 흠치는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는지 증명하는 ‘스모킹 건’일 뿐이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2018년 성남시장 시절 이를 두고 ‘공천되면 살인마도 당선’이라는 말을 했을 정도

였는데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조국당은 “선택권 박탈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136곳 중 74곳(54.4%), 광역의원 선거구 37곳 중 20곳(54%)에서 투표조작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다”며 “광역의원 당선자 89.2%가 특정 정당 소속 즉 민주당이라는 통계는

전북의 민주주의가 사실상 ‘식물 상태’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권력형 비리 침묵과 선거구 쪼개기 썩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최근 고창군에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관의 선택적 침묵,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무색게하며 기득권을 영구화하려는 ‘2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 또한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당국은 신영대 사건을 계기로 지역 정가에 만연한 여론 조작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그 선봉에서 전북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동물의약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기업·전문가·주민까지’

전북도는 12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안호영 “새만금 첨단 유치·용인 점점 특위 구성 환영”

민주당, 용인 전력·용수 점점 착수
새만금 첨단산업 유치 지원 전담
전북 제기 문제의식 공식 의제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은 12일 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의 전력·용수 문제 점검과 새만금 등 지방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



안호영 의원

공식 논의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와 지방 산업 배치 문제가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한 핵심 산업”이라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 등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2면에서 계속>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본궤도’ 핵심 인프라 착공 잇따라

전북도가 농생명산업지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도는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생명산업지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전북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6개 농생명산업지구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별 핵심 사업 추진 일정과 향후 성과 창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 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R&D)을 집적화해 산업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는 전북형 성장 거점으로 현재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각 지구는 지역 특성에 맞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중이다.

남원 ECO스마트팜 산업지구는 청년 농 유입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3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기반 조성 공사에 착공하고, 11월에는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공사 발주를 준비하는 등 단계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진안 융합한방산업 진흥지구는 홍삼 가공·유통·판매 시설을 집적화해 지역 홍삼 매출을 2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 중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 판매·유통단지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창 사시절 김치특화 산업지구 역시 연간 5천 톤 이상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 동물의약품 산업지구는 동물의약품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 시제품 생산시설을 오는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연내 임상시험센터 실시설계에도 착수하는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수 저탄소한우 산업지구는 축산 분야 탄소배출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2월부터 종모우센터 부지 조성과 건축 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순창 미생물 산업지구는 미생물 자원과 발효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를 2월 착공할 계획이다.

도는 지구별 핵심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참여 주체 역량 강화 교육과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사업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업들과의 전·후방 산업 연계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현대모터스 최재호 대표 선임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12일 최재호 현대자동차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신임 대표이사는 현대자동차에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임직원 지원 영역을 총괄해왔다.

구단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체계 개선과 구성원·팬·파트너 지원



최재호 대표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현대에는 이번 인사 변화에 따라 모기업의 경영 관리 노하우를 구단 운영 전반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목해 구단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재호 대표이사는 현대자동차 경영지원본부장직을 겸임하며 구단과 모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부안군의회의는
군민이 재미있게 잘사는 부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의의회

의회

전북도, 첨단복합소재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도전

'26~'30년까지 총 500억 투입
전주 탄소산단·완주 국가산단
새만금 부안 일대 조성 구상
소재·시험·조달전주기생태계 구축

전북도가 첨단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 국방 첨단, 합정 MRO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북은 첨단소재 산업 특화 지역으로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500억 원(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을 투입해 전주 탄소산단, 완주군 국가산단, 새만금 부안군 일대에 올해 2~3월 중 방위사업청 공모 사업을 통해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은 국내 유일의 '첨단 소재·부품 산업 전문 방산시험 장비군'을 갖추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KIST 전북분원 등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통해 국방 신뢰성 평가, 복합재 압축성능 시험 등 실증이 가능하며, 기업 기술성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첨단방산소재 독립전략'에서 필요한 부품소재

의 시험평가 및 인증·실증을 전달할 지역 거점 클러스터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내에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첨단소재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5개소가 집적화돼 있어 소재개발부터 실증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또 방산지정기업 4개사, 국방소재 연계기업 26개사,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80개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탄소소재,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해양플랜트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의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핵심은 국방 및 방위산업 분야 소재·부품·완제품의 기획부터 설계연구, 시험, 조달까지 생태계 전주기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글로벌 인증 및 조달 진입이 가능한 시험·설계 인프라를 마련하고, 도내 혁신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험장비 및 연구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과제 추진과 함께 수출시장 진출 및 국내 시장 확보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 기업지원도 병행한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탄소소재는 연소



전북도가 첨단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0일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협의회 출범 <사진=전북도> 관, 연구구조물 등 방산분야에 활용되며 이차전지 및 연료기술은 미군 등 선진국의 중장비와 개인장비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군용차량 개발을, 건설기계는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한다. 해양플랜트는 특수임무 운송 분야의 기술개발에 적용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방산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되면 우주·항공·국방에 사용되는 첨단소재 상용화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국방소재의 해외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국산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천기술이 부족한 첨단소재산업에



이성운 의원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성운, 보선서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2차종합특검법 신속 처리
당원 1인 1표제 추진”

이성운 의원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 의원 등 3명의 최고위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 ‘친명계’인 강득구위원과 ‘친청계’인 이성운·문정복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강득구·이성운·문정복 후보가 차례로 1~3위를 기록했고, 이강태 후보는 4위로 탈락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친명계인 유동철 후보가 지난 6일 사퇴한 뒤에 같은 친명계인 이강태 후보를 지지했으나, 이 후보는 탈락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 의원은 최고위원 선출 이후에 “당심을 명심하겠습니다”며 “내란정산, 검찰·법원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2차종합특검법”을 올해 1호법안으로 신속히 통과시켜, 윤석열·김건희 특검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 승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 당원들의 요구인 당원 1인 1표제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TP서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개최

산학연관민 관계자 30여명 참여
사업 구성·규제특례 방향 등 청취
내달 중 중기부에 최종 제출

전북도는 12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전북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차세대 동물 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업과 전문가, 관계기관,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등 산·학·연·관·민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총괄기관인 한국동물용 의약품평가연구원이 실증사업 구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증 내용과 규제특례 적용 방향, 지역 산업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자치도는 공청회와 함께 진행 중인 의견수렴 기간(1월 8일~2월 6일) 동안

안 접수된 의견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특구계획을 보완한 뒤, 2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공청회에서 제안된 기업과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기업의 투자와 성과가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예비사업자를 모집해 13개 기업을 선

정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경 최종 특구로 지정될 경우 2027년부터 4년 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만큼, 이를 특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성공적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이뤄내겠다”며 “전북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문승우 의장 “행감·조사 불응 처벌 국회 수준으로 강화해야”

12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처벌 규정 개정 촉구
지방의회 강제력 한계 지적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션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문승우 의장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중언감정

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전 심나 국정감사·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문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회의 ‘형(刑)’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뿐 아니라 해당 규정에 강제

<1면에서 이어서>
안 의원은 또 “앞으로 중앙당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또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국가 성장 전략을 보다 튼튼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의원들은 “전력이 부족한 용인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우, 새만금 등지에서 대형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중앙당은 이같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력도 없어 지방의회의 온전한 권한 행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절차상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연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을 할 경우 등에 대해 국회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겨울철 화재의주범

부주의 화재

담배꽂초 불씨 제거 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촛불 및 향초
사용시
발침대 고정하기

음식을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쓰레기
소각 금지

중기부,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참여 기업 모집

401억원 294개 과제 지원...민·관 협력 시장진입 가속화

중기부는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하고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기술이전 및 구매연계 과제를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로 통합·신설한 것이다.

2026년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총 401

억원 내외로 294개 과제를 선정한다.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PoC·PoM)에 200억원(200개) 구매연계·상생협력에 201억원(94개)이 투입된다.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TRI점프업 및 구매연계 과제 지원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분야 중 '기술이전사업화'는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한국형 STTR' 모델을 도입해 단계별 지원 구조로 고도화했다.

기술이전사업화는 중소기업의 사업화

실적 제고를 위해 2단계로 구성된 과제로 2026년에는 1단계(PoC·PoM)를 통해 기술 및 시장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1단계 수행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업무지원기관을 통해 기술개발전략 수립부터 기술자문, 실증까지 전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은 수요처나 투자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하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용화에 방점을 둔다.

올해는 과제 완료 후 성실히 구매를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9일부터 2월 12일 18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육성 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 이사회 개최

신임 임원진 선출 농심전심운동 확대 논의

전북농협이 육성하는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와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가 12일 '2026년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전북 14개 시·군 신임회장단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신임 전북도 임원진 선출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농심전심운동 확산 방안 △조직 활성화 등의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농심전심운동을 26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도농상생 실천 활동',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취약계층 지원', '농촌 현장 봉사활동 지원' 등의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와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는 앞으로도 전북농협과 협력해 농심전심운동을 기반한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신년인사회 성료

김관영 도지사 등 참여 도민과 소통·협력 다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가 12일 희망찬 병오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전주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안호영·이원택·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유희태 완주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윤석정 전북에향본부 총재 등 건설관련 기관 및 도내 유관단체장을 비롯한 역대 건설인 원로와 회원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소재철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 협회는 정부기관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낙찰률 상향, 일관관리비 요율 상향, 공사비 보정기준 현실화 등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역시 경영 환경이 녹록하

지 않지만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혁신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어 새로운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추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신규 물량장출, 적정공사비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설산업 규제 개선 등 지역건설업계가 역경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품질 확보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올바른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에서 "병오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 도민과 뜻을 나누고 도민이 공감하는 여민유지(與民由之)의 자세로 건설업계에서도 지역도민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전북 건설 산업을 이루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협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12일 희망찬 병오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전주라한호텔에서 개최했다.

도지사 표창은 (유)플러스건설 나춘균 대표를 포함한 13명에게 수여됐다.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선 진강건설(주) 김학범 대표 등 9명은 교육감상, 협회 발전에 헌신한 (유)그랜드종합건설 박정순 대표 등 3명에게는 대한건

설협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전북 광역 교통 이슈 및 연계 방안'을 주제로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써 교통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전북연구원 김상영 선임연구위원의 이슈 브리핑이 있었다.

/정혜민 기자

농진청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체계' 구축

탄소흡수 계수 국내 최초 개발...국제 권고 부합 산정

농촌진흥청은 농경지 부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정밀한(Tier 2 수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공동 '사과', '감귤나무' 탄소흡수 계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시, 산림지 입목만 포함하며 농경지 중 과수·과수원은 토양 탄소만 반영하고, 과수의 바이오매스는 제외됐다.

이런 이유로, 과일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관련 계수가 없어 정확한 측정 및 평가가 어려웠다.

이에 연구진은 국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대와 아열대 대표 과일이자, 국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각 22%, 18.5%를 차지하는 사과·감귤을 대상으로, 대표 품종, 재배 형태, 주산지, 경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소흡수 계수를 각각 4종 개발했다.

이 계수를 적용해 보니 2024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감귤은 약 18만9000톤, 사과는 약 17만2000톤의 탄소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된다.

나무 나이별 편차는 크지만, 경신주기를 기반으로 평균화하면 감귤은 1그루당 약 12.4kg, 사과는 약 7.2kg 수준으로 탄소를 축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면적 1,000헥타르(ha)가 증가할 것을 가정했을 때, 사과 과수원은 약 26만 235톤, 감귤 과수원은 약 34만 174톤의 이산화탄소(CO2) 추가 흡수 저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계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농경지 부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권고하는 정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검증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공표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 직무대리는 "사과·감귤 과수원 바이오매스 탄소축적량이 공식 통계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민간협력

올해 약 17만9천 필지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병소)는 국토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는 국고보조금 405억원이 투입되며, 전국 222개 시·군·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9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수행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1월 26일까지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2월 5일 오전 10시 이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민간대행자 선정에서는 132개 업체가 신청해 9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대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관원야간업소막걸리전문점 원산지표시 점검

14~19일까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야간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에 대해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가 미흡했던 야간음식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단속 취약 시간대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단속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전북중기청 '2026년 중소기업 핵심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오는 15일 전북중기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6년 중기부 주요 정책방향 설명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지원기관 담당자 사업설명 및 1:1 맞춤형 현장상담도 가능하다.

한, 중앙·지방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부 전주지청,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시행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각

종 제도로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중기청은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월말까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부안, 진안 등 9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지역별 설명회와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 수출, 소상공인, 창업, R&D 등 주요 사업을 담은 영상을 시리즈별로 제작해 중기부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26년 지원사업 안내책자 및 분야별 사업설명자료 파일'을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중기청 누리집과 기업마당에 게재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2026년 혁신기업 육성' 시동

전북테크노파크는 12일 '2026년 제1차 전북자치도 혁신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무자 간담회는 도내 혁신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현장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원주군 소재 혁신기업 대륜산업(주)에서 마련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 혁신기업 실무 담당자 및 전북테크노파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기업 육성사업의 주요 현안 공유 △대륜산업(주) 기업 소개 및 생산 라인 견학 △혁신기업 간 협업 및 프로젝트 연계 논의 △신규 혁신기업 네트워크 강화 위한 프로그램 구상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사업 운영 및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 공개 추첨

16일 오후 2시 배정 결과 발표... 19~21일 학교별 합격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본청 2층 강당에서 202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을 실시했다.

이날 공개 추첨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진형석 전북특별자치

도의회 교육위원장, 이해은 전북중등교장협의회장, 언론인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등 6명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군산, 익산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전주 23개교 5,827명, 군산 8개교 1,859명, 익산 8개교 1,684명 등 총 39개교 9,370명이다.

학교 배정은 체육특기자, 교육지원대상자,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 질환자,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을 선배정하고, 공개 추첨으로 뽑힌 배정기초 값에 의해 일반배정 대상자를 1지망 지원자부터 정월수(학교별 선배정자 제외)만큼 컴퓨터로 추첨해 이뤄졌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북고입전형포털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다.

입학등록은 오는 19~21일이며, 배정된 고등학교 누리집 통해 학교별 등록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우리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체육회 문병량 신임사무처장 업무돌입

“현장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 문병량 신임 사무처장이 12일 본직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임용장을 받은 문병량 사무처장은 도 체육회 임직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학계 출신인 문 사무처장은 예원예술대학교 스포츠융합복지학과 교수로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한국스포츠포스산업경영학회 부회장, 한국골프학회 회장, 대한체육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병량 사무처장은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며 “사무처장

자리는 관리자의 자리가 아니라 전북 체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체육 현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실무자인만큼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지원형, 현장행정을 받은 문병량 사무처장은 도 체육회 임직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이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문 사무처장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대·내외 활동에 나서게 되며 전국(동·하계)체육대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체육영재선발대회 등 굵직굵직한 대회를 비롯해 체육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장정철 기자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졸업생 이정희씨, 1억 원 기부

학교 배움터지킴이로 활동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전국 유일의 수소에너지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인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는 졸업생의 장학기금 기부와 지역사회·기업·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소에너지고 제15회 졸업생인 이정희 씨는 지난 9일 모교에 수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 씨는 약 33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했던 퇴직 공무원으로, 은퇴 이후에도 타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부는 평생의 공직 생활을 통해 마련한 개인 재원을 교육에 환원한 사례로,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씨는 재학 시절 장학금 수여식을 지켜보며 언젠가 후배들을 돕겠다는 뜻을 마음에 새겼고, 은퇴 이후 그 다짐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탁된 장학기금은 원금을 유지한 채 발생 이자를 활용해 매년 5~6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조성 과정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기업, 단체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동시에 형성됐다.

정석등대가 2,000만 원, 완주수소장학회가 1,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한솔케미칼 500만 원, 관련 협회 200만 원, 동창회 100만 원 등 다양한 주체가 장학금 조성에 동참했다. 이는 단일 주체의 후원이 아닌, 지역 기반 교육 협력이 다층적으로 이뤄진 사례로 평가된다.

수소에너지고는 이렇게 모아진 장학



재원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입학생 전원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입학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유일의 수소에너지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서 미래 전략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업 동기를 높이기 위한 취

지다.

송현진 교장은 “앞으로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과 연계해, 학생들이 대한민국 수소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K리그2 충북청주FC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실력을 입증한 미드필더 김영환(23)을 영입했다. 김영환은 날렵하면서도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공격형 미드필더(AMF)와 수비형 미드필더(DMF)를 두루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다.

김영환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볼 소유 능력과 영리한 경기 운영으로 중원에서 공을 지켜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상황 판단력이 좋아 팀의 공·수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확한 패스와 빠른 공·수 전환 능력을 갖췄으며, 적극적인 수비 가담과 인터셉트 능력 또한 뛰어난 공수 양면에

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 충북청주FC에서 프로 데뷔한 김영환은 그해 K리그2에서 15경기 출전 1득점 1도움을 기록했고, 2025시즌에는 33경기에 출전해 3득점 2도움을 올리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전북현대에는 김영환이 기술과 활동량을 겸비한 선수로 K리그1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입단 소감에서 김영환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게 돼 설렌다. 나의 장점인 패스와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며 “전북의 우승 도전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라



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학 중 학습 단절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약 2주 동안 △요리교실 △디지탈 드로잉 △체육교실 △라탄공예 △코딩교실 △방송댄스 등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채선영 교육장은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탐색 및 미래·가족 간 교류 강화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오베르단 영입... 중원 무게감 더한다

활동량·수비 능력 강점

전북현대에는 지난 10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한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오베르단 영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2026시즌 리그 2연패와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는 전북에 강력한 중원 동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베르단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는 멀티 자원이자,

2023년 K리그에 데뷔한 그는 첫해부터 공식전 37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코리아컵 우승을 이끌었고, 꾸준한 활약을 선보이며 이듬해에는 ‘2024 K리그1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을 수상하며 리그 정상급 기량을 증명했다.

오베르단은 경기 내내 지치지 않는 압도적인 활동량과 상대의 흐름을 끊는 날카로운 수비 능력이 강점이다.

특히 90분 내내 변함없는 에너지를 공급하며 팀의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는 능력은 팀의 경기 운영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장정철 기자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노면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구간에서는
절대 감속!

급제동, 급핸들 조작,
급가속은 절대 금지!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기

차량이 미끄러질 때
핸들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익산시, 대학생 인턴 152명 선발…청년 진로 지원 나서

익산시가 대학생들에게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 진로 지원에 나섰다.

시는 12일 익산청년시청에서 ‘2026년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겨울방학 행정인턴에는 총 57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중 152명이 최종 선발됐다. 대학생들은 시청 각 부서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배치돼 오는 2월 6일까지 4주간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과 사회 적응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학생들에게 행정 현장을 경험하며 진로를 구체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6일까지 빈집 정비 사업 희망 시민 신청·접수

정읍시가 도심과 농촌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는 방치된 빈집을 시 차원에서 직접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거주자가 떠난 지 1년 이상 지나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쓰레기 투기 등으로 저해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고질적인 도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6억 4800만원을 투입해 관내 27개소의 빈집을 선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접수된 물량 중 범죄 발생이나 위생 문제, 붕괴 우려가 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빈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공공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건물에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고흐·고갱 겨울방학 특별 기획전 열어

군산예술의전당이 겨울방학을 맞이해 ‘고흐와 고갱: 세기의 라이벌’ 레플리카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강렬한 관계로 꼽히는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두 거장,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주요 작품을 한 공간에서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회에서는 두 화가의 대표작을 정교하게 재현해 색채, 붓질, 주제 의식 등 표현 방식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흐와 고갱’·‘파리에서의 만남’ 등 다양한 주제 섹션이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특히 관람 후 관객이 예술가의 삶을 주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3가지 체험형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고흐가 고갱에게 남긴 편지를 모티프로 감상평을 편지 형식으로 표현해보는 ‘고흐에게 보내는 편지’ △‘고흐의 의자’, ‘고갱의 의자’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을 상징하는 의자를 디자인하는 ‘나의 의자 만들기’ △다양한 색채로 자신만의 밤하늘을 완성해보는 ‘다채로운 밤하늘 완성하기’가 그것이다.

전시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2전시실·3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전 시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1인당 30만원 지원 19일~2월 13일까지 신청…생활 안정 도모

정읍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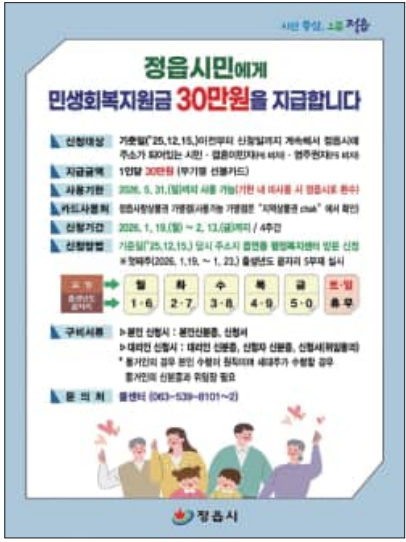
이번 지원금 지급은 2024년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는 지난해에도 강도 높은 재정 혁신과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 재원을 확보했다. 이를 시민들에게 환원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모든 시민이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 주민등록이 말

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 동의서와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챙겨야 한다. 14세 이하 아동의 지원금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액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는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며, 유효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단, 지역 자급의 역의 유출 방지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위해 유흥 및 사행성 업종, 공과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읍시로 자동 환수된



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다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도지사 방문 맞아 지역 현안 건의

한반도 KTX·뉴딜사업 전주권 광역철도 등 제시

익산시는 1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시군 순회 방문에 맞춰 지역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민생 현장을 함께 살피며 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익산시청을 찾아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

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는 이날 △한반도 KTX 신설 관련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역량 집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지원 확대 △전주권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익산 건립 지원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는 교통 접근성 개선과 원도심 회복, 산업재해 대응 기반 확충 등 익산의 중장기 발전과 직결된 사항들이다.

특히 시는 전북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가식품산업 중심지인 익산의 위상을 강조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 현장을 살피고, 북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현장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복지와 민생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도에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익산의 현안은 곧 전북의 과제라는 마음으로 도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해물짬뽕, 서울시청 ‘특별식’ 메뉴 선정

서울시-지자체 협업 사례 시청 구내식당 점심 제공

군산시가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구내식당에서 군산의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주재료로 한 ‘군산 특별식’ 해물짬뽕을 선보인다.

서울시청 ‘특별식’이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식단 다양화를 위한 행사로 타 지자체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급식 메뉴를 구성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특별식 메뉴는 서울시가 지자체와 처음으로 협업한 사례이며, 그런 점에서 군산시가 첫 협업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서울과 군산이 손잡고 준비한 ‘군산 특별식’은, 군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해물 짬뽕, 울의 장아찌 등이 주요 메뉴이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 재료로 만들어진 군산의 맛을 서울 시청 직원 1,700여 명에게 맛보이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 전부터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내 서로장터(군산 로컬마켓)를 운영해 딸기, 군고구마 등 농산물과 군산짬뽕라면, 군산맥아로 만든 식혜 등 지역 가공품을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다.

시는 서로장터를 운영하며 다채로운 서울시와의 협업이 이번 행사로 이어진 데 이어 앞으로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산특별식’ 식단에 포함된 일부 재료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내 서로장터에서 구매가 가능해, 시청직원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군산시 지역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되는 기회도 마련될 전망이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김상기 과장은 “이번 특별식 행사는 서울시청 직원들에게 든든한 한끼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판로를 넓히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전입지원금 대폭 인상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전입 시민 정착 도움

정읍시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는 전입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 지급 구조는 전입 시민이 정읍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정착 인센티브’ 성격을 강화했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1차로 20만원, 2차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최소 1년 이상 정읍에 거주할 경

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 또한 시대 흐름과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앱 충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급의 역의 유출을 막고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사용이 낯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해 예외적으로 지류형 상품권 등 대체 수단을 병행,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금액과 변경된 지급 방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시에 전입 신고를 마친 시민부터 소급 적

용된다.

이 밖에도 시는 전입 시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8학기 최대 400만원)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최대 50만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전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전입지원금 확대와 지급 방식 개선이 정읍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지역에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읍시에 오길 참 좋겠다’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지휘자 프로젝트’ 개최

조은혜 지휘자 무대 올라

군산시립합창단이 제121회 정기 연주회 ‘2026 The Barton Series I 지휘자 프로젝트’ A Tempo, 군산! ‘멈추지 않는 항해’를 오는 2월 5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채용을 위한 공연 심사를 겸한 무대로,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된 최종 3인의 지휘자 후보 중 첫 번째 후보가 자신의 음악적 색채와 해석을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지휘를 맡은 조은혜 지휘자는 현재 대전시립합창단 전임 지휘자로 활동하며, 목원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뒤 독일로 유학해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와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마쳤다.

이후 제7회 국제합창지휘콩쿠르 2위, 국립합창단 지휘경연대회 1 등 국내의 주요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합창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겸비한 지휘자로서 생동감 있는 무대 에너지와 섬세한 음악 해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공연의 첫 무대는 ‘Grave - 심연의 침묵, 그 깊은 울림’을 주제로, 안톤 브루크너의 무반주 혼성 4부 합창곡 ‘Christus Factus Est’로 문을 연다. 이어 드뷔시의 ‘Romance’가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반복적인 리듬과 강렬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현대 라틴리듬 합창곡 ‘Ritmo’가 무대를 채운다.

또한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먼저 느끼게 하는 조혜영 작곡의 ‘봄바람 난 년들’ 등 한국 합창곡도 함께 연주돼, 군산시립합창단의 섬세하면서도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심종완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과장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지휘자 심사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각 후보의 지휘 역량을 비교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혜 지휘자 무대 올라

과 오케스트라 지휘를 겸비한 지휘자로서 생동감 있는 무대 에너지와 섬세한 음악 해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공연의 첫 무대는 ‘Grave - 심연의 침묵, 그 깊은 울림’을 주제로, 안톤 브루크너의 무반주 혼성 4부 합창곡 ‘Christus Factus Est’로 문을 연다. 이어 드뷔시의 ‘Romance’가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반복적인 리듬과 강렬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현대 라틴리듬 합창곡 ‘Ritmo’가 무대를 채운다.

또한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먼저 느끼게 하는 조혜영 작곡의 ‘봄바람 난 년들’ 등 한국 합창곡도 함께 연주돼, 군산시립합창단의 섬세하면서도 풍성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심종완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 과장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지휘자 심사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각 후보의 지휘 역량을 비교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중앙동 타워크레인 철거된다…시민 불안 해소

익산시가 중앙동 일대의 멈춰선 타워크레인 철거 협의를 이끌어내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게 됐다.

시는 오는 2월부터 중앙동의 한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상부 구조물 해체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타워크레인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체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현장은 2023년 8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며 타워크레인이 장기간 현장에 남아 있어, 인근 시민과 상가 중 심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익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

재에 나서, 공사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크레인 소유업체 간 해체 비용 분담 협의를 이끌어냈다.

협의 결과, 공사는 해체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체는 상부 구조물(뿔대·추 등)을 우선 철거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번 철거는 완전한 해체보다는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부 구조물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담 등 잔존 구조물은 향후 활용 가능성도 고려한 형태다. 시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전방위로 제공해 철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방세 ARS 납부·자동 납부’ 편의성 ↑

군산시가 시민들이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카드 납부’와 ‘지방세 자동납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은행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도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ARS 카드 납부는 전용 번호(142-211)를 통해 오전 7시부터 밤 11

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매번 고지서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다. 시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용 기념품인 ‘하모니밴드’ 1,000개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민원실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

정읍시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폐비닐 처리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밭 밧고 나섰다. 시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폐비닐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품목은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

성 멀칭필름’과 제조세 없이도 잡초 성장을 억제하는 ‘잡초 방지용 매트’ 두 가지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나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농가, 공동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전봉준장군 탄생 170주년 기념

고창서 출생…문화의 전당서 16일까지 탄생 기념 특별전도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정기백)가 지난 10일 오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장군 탄생 제17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해 전국 기념사업회 및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를 포함한 군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봉준 장군의 탄생과 무장기포까지의 일대기를 AI로 구현한 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번행사는 헌수, 봉정, 봉주, 현화가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또한, '침묵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선보여 전봉준 장군의 결의를 느끼게 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정기백 이사장은 "고창이 낳은 위대한 역사 인물 전봉준 장군의 숭고한 정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지난 10일 오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전봉준장군 탄생 제17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신 자주와 평등 민권의 가치를 되새기며, 근대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봉준 장군께서 평생 염원하셨던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과거의 이상이 아니라, 오늘의

고창에서 군민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는 전봉준장군 탄생을 기념 특별전이 개최돼 2025년 무장기포 예술작품 공모전 수상작 15점을 감상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주)범화, 농산물 판매 상생협약

5월부터 오창휴게소서 특판

전북 고창군이 고속도로휴게소 운영업체와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중부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운영 중인 (주)범화(대표 이영호)와 '고창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창군과 (주)범화는 △고창군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와 △고창군 농촌 관광 촉진을 위한 홍보 △고창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휴게소 제품 판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 (주)범화가 운영하는 중부고속도로 내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 수박, 복분자, 멜론 등 시기별 주요 농산물 판매 행사를 통해 새로운 판로 개척 및 고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기별로 출하되는 우수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확보 및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 새출발

프로그램 강화·연계확대

김제시 드림스타트(시장 정성주)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다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체·인지·정서·가족 지원 등 아동 성장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김제시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사업 내용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필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한편, 아동 및 가정별 욕구를 반영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영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26년 드림스타트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동과 가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주)주아건설·전애진 에스텍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주)주아건설(대표 김성훈)과 전애진 에스텍(대표 전애진)이 고창군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주아건설 김성훈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뜻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병섭 고창읍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성훈 대표와 전애진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된 성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의미있게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읍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재)고창군장학재단 서울·전주 장학숙 입사생 모집

고창군과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수도권 및 전북권 대학에 재학 중인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2026년도 고창(서울·전주)장학숙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서울장학숙 29명, 전주장학숙 53명 등 총 82명을 선발한다.

장학숙은 책상, 침대 등 기본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취사시설을 마련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 또는 전북권 소재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과 신입생, 휴학생 중 복학생으로, 본인 또는 부모(부모 중 1인 이상)가 2025년 1월1일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026년 1월12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고창군 인재양성과평생교육팀) 또는 온라인 접수(고창군 홈페이지)로 진행된다.

선발은 학업성적과 생활정도를 종합 평가해 고창장학숙 운영규정 배점기준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선발 결과는 2월 13일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2월 19일 입사설명회를 거친 후 입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은 "꿈을 펼치기 위해 타지에서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2026년 아동복지정책 강화

지원금액·대상자 확대 아동수당·양육수당 ↑

김제시는 2026년 아동복지정책의 지원금액 및 대상자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차원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아동수당의 지원이 늘어난다.

기존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세 미만(0~107개월) 아동에게 매월 11만원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40천원 지급되던 양육수당이 7세미만(83개월) 아동에게 월 34만원, 7세~13세미만(84~155개월) 아동에게 월 45만원, 13세이상 연장보호아동 포함(156개월부터) 아동에게 월 56만원 지원으로 올 1월부터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도비 사업이 추가돼 보육료의 80%



까지 지원이 강화된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된다.

지나해 대비 500원 인상된 10,000원(1식)으로 인상된다.

이는 상승하는 외식 물가를 반영한 조치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 시 자체 사업으로 보편적 틈새 돌봄을 위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과 아동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어린이 안심 승강장

(Kids Station) 등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우수 아동친화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개선되는 복지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과 어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명실상부한 아동친화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5년 군비 쌀직불금 73억 지급

농가 소득 손실 보전 면적 따라 차등 지급

부안군은 2025년 군비 쌀직불금 73억 원을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비 쌀직불금은 관내 쌀 재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150농가, 1만 2353ha 면적에 군비 7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0.1ha~0.5ha 경작자에게엔 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0.51~5ha 경작자에게엔 ha당 57만원, 5.1ha~30ha 경작자에게엔 ha당 43만 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연초에 군비 쌀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안정과 영농 의욕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723회 지평선아카데미’ 선 초청 특별 강연

15일 개최 가족삶의 가치 나눔 철학등 공유

김제시는 오는 15일 제723회 지평선아카데미에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유명한 선 승일희망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지금은 선물이다(부제:나눔, 가족, 가정, 육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은 과거 합합그룹 지누선으로 데뷔해 많은 인기를 누리며 가수로, 현재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기부와 봉사에



선

앞장서면서 연예계의 기부 천사로 불리고 있다.

또한, 4남매의 아버지로서 따뜻한 가정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선은 실제로 육아와 관련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에서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 가정의 소중함, 그리

고 육아의 기쁨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할 예정으로, 단순한 연예인의 강연을 넘어 삶의 가치와 나눔의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경로당 IPTV를 통해 강연 영상이 실시간 송출되고, 강연 후에는 감사 동의 하에 김제시 사이버학습센터(<https://cyber.gimje.go.kr>)에 영상을 업로드해 제공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진서면, 이장 임명장 수여식·회의 개최

부안군 진서면(면장 김연태)은 지난 9일 면사무소 임시청사 2층 회의실에서 이장 임명장 수여식 및 2026년 첫 번째 이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신임 이장 4명을 비롯해 총 23명의 이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날 임명된 이장들은 지난 1일부터 3년의 임기 동안 군정 및 면정 홍보 사항 전달, 주민 여론 수렴 및 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마을 기반 시설 관리 등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앞장서서 해결할 예정이다.

또 각 마을을 이장들과 군정 및 면정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각 마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면정에 반영하

기 위해 이장회의를 실시했다.

김윤선(진서마을 이장) 진서면 이장회의회장은 "마을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기 좋은 진서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연태 진서면장은 "2026년에 취임한 이장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6년 군정화두인 '결실창래(結實蒼來)'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이장들과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시 2026년 변화 68개 정책 ‘한눈에’

시 누리집에 8개 분야 변화 총 정리 내달 전 시민에 20만원 민생금 지급 시민 생활 밀접 분야 중심 ‘손질’

남원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도와 정책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6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6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확대되는 주요 시책과 제도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산업·농업·복지 등 8개 분야 68개 시책·제도가 담겼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10건 △농촌·농업 9건 △문화·관광·교육 7건 △복지·건강 9건 △노인·장애인 7건 △아동·청년·외국인 13건 △주거·환경·안전 6건 △행정·시민생활 7건이다.

남원시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민생경제 회복

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과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청년농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버병행충 공동방제를 3회로 늘려 농업 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비용을 지원하고, 온라인 판로·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문화누리카드와 청년문화예술페스티벌 지원을 확대하고, 제96회 춘향제 기간 광한루원 무료 입장과 차박존을 운영한다. 한옥숙박 스테이بل트 확장과 온라인 학습플랫폼 도입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육 접근성을 강화한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광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개시하고, 무료간병·일상돌봄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랑드림 지원사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총 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및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병원동행·목욕비·맞춤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의자·임플란트 지원과 무상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어르신 건강권과 이동권을 높인다.

아동수당·가정위탁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아이돌봄·여성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도전·창업 지원과 다자녀 가구 패밀리카, 지역기반 비자 사업을 통해 인구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복지안전주택을 운영한다. 라돈 저감, 재할용품 무인회수기 확대와 함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늘리고, AI 기반 도로안전관리 서비스를 구축한다.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다자녀가구 감면을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고, 민원실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 등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다운’ 첫 산모 입소

남원시장 축하 인사 선물 전해 다둥이 70% 등 감면 혜택

남원시는 전북자치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이 12일 첫 산모를 맞이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초 입소 산모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쌍둥이 출산 산모로, 남원시장은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산모와 가족을 직접 격려하고 출산 기념 육아용품 등 축하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산후케어센터 다운’은 365일, 24시간 전문 돌봄 체계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용 대상은 남원시

민을 비롯해 전북도민과 지리산권(구례·곡성·함양·산청·하동군) 지자체 산모와 시민의 자녀까지 확대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원이다.

이 중 다둥이 출산 시민 등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자는 70%, 시민 50%, 전북도민 30%, 지리산권 산모 및 시민 자녀 10%의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산모 회복과 육아 초기 적응을 돕는 맞춤형 산후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과 첫 산모 입소는 남원시가 출산 친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2025 청년통계’ 첫 공표…정책 기초자료 활용

호남지방통계청 협력 73개 지표 청년 685명 거주 경제참가율 62.2%

순창군은 호남지방통계청과 협력해 지역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2025 순창군 청년통계’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통계는 순창군이 지역특화 통계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 추진한 통계로, 관내 19세부터 49세까지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인구·가구, △경제·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 6개 부문 총 73개 지표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의 삶의 실태와 변화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순창군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6,805명으로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3,4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나타났다. 또한 순창군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 대비 0.18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통계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연계해 작성한 ‘행정(가공)통계’ 방식으로 구축됐다. 특히 교육, 노동시

장 진입 및 유지 등 사회적 자립이 이뤄지는 ‘청년기’에 주목,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통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오래 머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이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년통계는 향후 청년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ESG ‘최고등급’…A+로 선도 지자체 굳혔다

광역·기초 243개 중 단 2곳 획득 인구·경제 등 전반 행정역량 입증

완주군이 한국 ESG 평가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군은 2024년 ESG 행북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와 2025년 한국ESG평가원의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에서 사회적 책임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ESG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일

증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갖춰야 할 핵심 가치다.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은 75.2점을 기록해 전체 지자체 평균인 62.5점을 크게 웃돌며, ESG 전반에 걸친 우수한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A+ 등급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 가운데 단 2곳만이 받은 최고 성적이다.

평가원은 완주군이 저출산·인구 감소 대응,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공공복지 강화, 불평등 해소 등 전략적 정책을 추진해 사회(S)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으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G) 부문에서도 모범적인 행정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완주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10만 인구를 돌파하고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했으며, 글로벌 수소도시 조성, 디지털 AI 산업 육성, 문화선도산단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어르신 임플란트·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

임플란트 1개 최대 50만원 백내장 양안 최대 50만원 지원

순창군이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군민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 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83,365원, 지역가입자는 123,644원 이하가 해당된다.

단,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51,148원, 지역가입자 83,6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의료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개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순창군이 고령층의 임플란트, 틀니, 백내장,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순창보건의료원.

틀니(의치)의 경우 보험적용 의료비의 50%를 보조하고,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당 최대 25만 원, 양쪽 수술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는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모두 수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반드시 수술 전 사전면의를

<사진=순창군>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노인요양나눔재단을 통해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백내장 등 안과 수술과 틀니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2026 곤충산업 육성 지원 신청 접수

곤충 생산 안정화가공유통 지원 곤충생산업 신고 농가법인 대상

남원시는 곤충 생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곤충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원 내용은 곤충사육을 위한 종충 및 먹이원 지원과 유용곤충 가공시설 건축 및 가공유통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및 법인으로, 곤충생산업 신고를 완료하고 실제 곤충생산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신청은 곤충 사육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가능하며,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곤충산업은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곤충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직장인 야간 정신건강상담소’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1시까지 사전예약제·상담 선별검진 병행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 마음사랑병원 진료과장)가 완주군민과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직장인 야간 정신건강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주간 상담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접근성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인 야간 정신건강상담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접수 마감 20시 30분)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심리적 어

려움을 겪는 직장인과 완주군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회 상담 시간은 약 30-60분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직접 진행하며, 우울·불안·스트레스·음주 문제·정신 등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선별검진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초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 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지속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장인 야간 정신건강상담소는 완주군보건소 2층,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사전예약이 필수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건축주택행정 ‘3관왕’…빈집 정비 성과

지난해 국토부·지방시대위·도 우수기관 선정 쾌거

남원시는 2025년도 건축·주택행정 전반에 대한 중앙기관과 전북도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빈집 매입 사업 추진이라는 특수 시책으로 기초지자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73개 지구대상의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북도가 주관 ‘2025년 주택·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옥외광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축·주택행정 전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남원시가 빈집 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빈집을 매입·정비하고, 이를 부서별 사업과 연계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해 왔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주택 환경과 거리 경관을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도 옥외광고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정기본 등록면허세 3억 400만원 부과

완주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본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2만 1,769건, 3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병원, 음식점, 무선국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2만 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앱(금융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완주 수소 군민편드’ 공약 발표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12일 정책이 소득이 되는 2호 공약으로 ‘완주 수소 군민편드’ 조성을 통해 기업과 완주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수소산업 1번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국 출마예정자는 “국가가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완주 수소 군민편드를 통해 우량 수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완주군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완주 수소 군민편드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임으로써 핵심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이익을 완주군민에게 환원하는 등 기업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는 완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수소 산단 내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국 출마예정자는 “완주군은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수소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선도기업 입주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수소 발전소, 수소 우량 기업의 수익이 완주군민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위 투자, 펀드 가입 군민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1982년 만 20세에 최연소 이장을 시작으로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상임위원, 전북도의원(2연임), 고산농협 조합장(4연임), 완주사랑지킴이운동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 기여를 인정받아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여 받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모던테크 대표 부친 김용래 씨 순창군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12일 ㈜모던테크 김성국 대표의 부친 김용래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순창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모던테크는 2021년 2월 설립된 유리 및 창호공사업체로, 디자인형 울타리 등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성국 대표는 기업 설립 후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을 순창군으로 이전하는 등, 순창군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아들의 노력에 부친 김용래 씨는 지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용래 씨는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순창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다시한 번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 중인 순창군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운봉흑돼지전문점, 남원시에 400만원 상당 돼지고기 기부

남원시 운봉읍 소재 운봉흑돼지전문점 신동권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흑돼지 700근 (4백만원 상당)을 기부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신동권 대표는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실천하여 공동체 복지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에 기부된 돼지고기는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영양 풍부한 말반찬 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구 등 식생활 관리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영양가 높은 반찬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올해 운봉읍에서 이뤄진 첫 번째 현물 기부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운봉흑돼지전문점은 지역 상권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꾸준한 기부와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주)제이에이치테크 김중현 대표, 진안군에 1,000만원 기탁

진안군은 지난 7일 진안군청에서 (주)제이에이치테크 김중현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주)제이에이치테크 김중현 대표가 참석해, 진안군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주)제이에이치테크는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디지털 무선통신시스템, 마을방송시스템, 업무용 무선기 및 CCTV 등 안전·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 기술기업이다. 특히 지역 기반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중현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진안군 발전에 힘을 보탬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현 기자

(유)대명티앤에스, 장수군에 성금 2,000만원 기탁

조순한부모차상위학생가정에 희망전하는기업나눔 실천

장수군은 유한회사 대명티앤에스(대표 김상희)가 지역 내 조순가정과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문데 초·중·고 및 대학생이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될 예정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한회사 대명티앤에스는 장수농공단지에 위치한 기업으로 통신장비, 전기수리,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대명티앤에스의 이러한 지속적인 나눔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신뢰와 연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은 유한회사 대명티앤에스가 지역 내 조순가정과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문데 초·중·고 및 대학생이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사랑나눔동호회, 성금 120만원 기탁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 사랑나눔동호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사랑나눔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나눔동호회는 단발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한 후원 활동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평소에도 봉사 및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기탁 역시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됐으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동호회의 뜻이 담겼다.

/장수=최진수 기자

고창노점상인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노점상인회(회장 박종주)가 지난 9일 고창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고창 전통시장 노점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노점상인회 박종주 회장은

"고창군 전통시장은 노점과 일반상인들이 화합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그동안 군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은 만큼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노점상인회는 매년 지역 행사 참여와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상생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 등 임실군에 장학금 전달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가 지난 9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연이어 개최하며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사)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회장 정현옥)에서 2백만 원을, 성수면 생활개선회(회장 정옥순)에서 1백만 원의 애향장학금을 기부했다.

정현옥 (사)생활개선임실군연합회 회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수면 생활개선회는 지역사회에 온정과 활기찬 열정을 전하는 여성단체로,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수익금 및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애향장학회 장학금 1백만 원을 지정 기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주우림중, 학교축제수익금모아적십자화비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는 전주우림중학교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하라며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회비는 학생회장 정명준, 부회장 정재희를 중심으로, 전주우림중학교 학생자치회가 지난해 12월 말 학교 '다우리'축제에서 부스운영을 통해 모금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서정배 전주우림중학교 교장은

"학생자치회 주도로 준비한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우림중학교는 2018년 적십자 희망나눔천사학교에 가입한 이후 바자회 수익금 기부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정읍 수성동 일광사, 새해 맞이 경로당에 떡·과일 나눔

정읍시 수성동에 소재한 일광사(주지 승천스님)가 12일 수성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가래떡 30kg과 바나나 10상자를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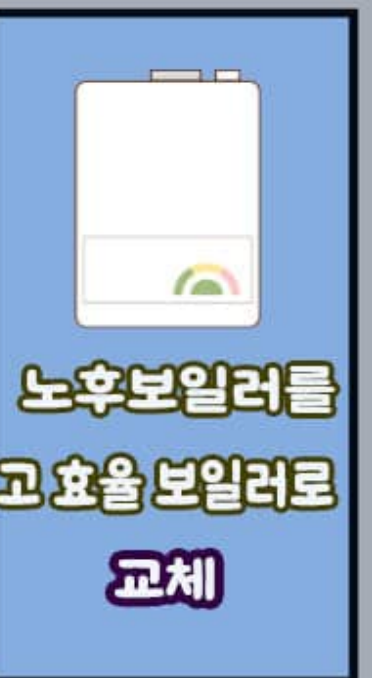
이번 기탁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21개 소 경로당에 골고루 전달돼 어르신들의 든든한 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승천 주지 스님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광사는 평소에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다양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읍=김정민 기자

도시가스 사용량 줄이는 법



〈一事一言〉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 금융정책의 역할

김관춘
주필

전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전북자치도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순한 예산 집행에 넘어 기업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정책 설계가 민선 8기 들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만 1조 3천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집행된 7,895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정책 의지의 강도와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창업 초기 기업부터 경영 안정이 필요한 기존 기업, 그리고 벤처·전략산업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해 맞춤형 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400여 개 기업이 8,300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며 경영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정책자금의 '실질 금리'를 낮춘 결정은 현장 체감도를 높인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올해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5%에서 4.35%로 인하하면서도 이차보전율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기업 부담 금리는 2%대 초반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조정이

아니라, 매달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여력을 제공하는 조치다. 정책금융이 '명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기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의 금융정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 전략 산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상용차 생산기지 확장은 전북 산업 구조에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협력 중소기업들에게는 대규모 설비투자라는 부담을 안겨 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모빌리티 전략산업 특별자금'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LT2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상으로 최대 50억 원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장기 상환 구조와 낮은 실질 금리를 적용한 것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치기간 연장과 긴급 대환자금의 조기 시행 역시 정책의 세밀함을 보여준다.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상환 시기를 늦추고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잘 나가는 기업'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기업까지 포용하려는 금융 안전망의 성격을 지닌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중소기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보다, 안정적인 자금 흐름 속에서 기술과 인력을 축적하며 성장한다.

전북자치도의 금융정책 역시 연차별 예산 확대를 넘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야 한다. 정책자금이 단순한 '버팀목'을 넘어,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될 때 전북 경제의 체질도 함께 강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융지원 정책이 특정 시기나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자금이 단순히 운영자금 보전에 머문다면 단기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술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 시장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 양성, 판로 개척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축적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생명,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탄소소재 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는 금융 지원의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이 전략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설계된다면,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이는 단일 기업의 성장을 넘어 산업 집적과 연관 기업 동반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의 과급 효과를 키우는 결과를 낳

는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책금융의 접근성과 형평성이다. 규모가 작고 정보에 취약한 기업일수록 정책자금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상담과 안내, 절차 간소화, 신속한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자금 지원 이후의 경영 컨설팅과 성과 관리까지 이어질 때 정책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다.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다. 전북도의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도내 중소기업들은 위기를 건드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다시 전북 경제를 떠받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때, 이번 정책 성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전북 경제 도약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전북자치도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은 '위기 대응'이라는 1차 목표를 넘어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길에 서 있다. 민선 8기의 정책 성과가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기업 성장의 이야기로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신영대 의원직 상실이 던진 질문, 정치권이 답하라

신영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한 개인의 불운이나 캠프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뼈아픈 사건이다. 대법원이 확정된 '여론 조작·경선 조작' 위죄 판결은 전북 정치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구조적 병폐를 드러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 조작 공천'을 추방하고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이 만들어낸 부패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 전 의원 선거캠프 전 사무장이 대포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금품을 매개로 경선을 왜곡했다는 사실은 '경선만 이기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왜곡된 정치 공식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전북 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굳어지면서 본선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그 자리를 조직 동원과 여론 조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대체해 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두고 '휴먼 에러'라고 표현했지만, 도민들이 체감해 온 현실은 오랜 기간 방치된 '시스템 에러'였다. 35년 가까이 지속된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공천 과정은 권력을 사고파는 폐쇄적 문턱으로 변질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특정 지역 공천은 살인마도 당선시킨다"며 2인 선거구제 개편을 촉구한 배경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선택지가 봉쇄된 정치에서 유권자의 표는 주권이 아니라 형식으로 전락한다.

숫자는 이 같은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136곳 중 74곳,

광역의원 선거구 37곳 중 20곳에서 투표조차 없이 당선자가 결정됐다. 광역의원 당선자 90% 가까이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사실은 전북 민주주의가 이미 심각한 빈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최근 불거진 일부 의원들의 각종 의혹 역시 우연이 아니다. 이는 도덕성의 문제 이전에 구조의 문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나, 특정 지역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선택적 침묵 또한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공천 독점 구조를 유지한 채 제도만 손질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첫째, '여론 조작·돈 공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불법 공천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 삭감과 후보 추천 제한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수사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정치 전반에 만연한 여론 조작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쑥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 없이는 민주주의는 다시 같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조작된 공천'이 아니라 도민의 '살아있는 민심'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신영대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이제 전북 정치가 응답할 차례다.

문화재열전



현곡정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서원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근현대
-소재지- 고창군 주곡1길 68-34
(고창읍, 현곡정사)

▲오늘의시

다음 생의 나를 보듯이 / 나희덕

어느 부끄러운 영혼이
절간 옆 툇밥더미를 쪼고 있다.
마치 다음 생의 나를 보듯이 정답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냐고
묻지는 않기로 한다.
새도 짐승도 될 수 없어

파드득 낮은 날개의 길을 내며
종종걸음 치는 한 생의 지나감이며
툇밥가루는 생목의 슬픔으로 젖어 있고
그것을 옮겨 가는 나여
질은 그늘 속
떠나지 않는 너를 들여다보며

나는 이 생의 나와 화해한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면서
불쌍히 여길 무엇이 남아 있는 듯
까웁까웁 울음소리를 한번 내보기도 한다.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입을 물들었다' '파일며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권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8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타임스신문은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282-9601
◇기사제보282-9600
◇신문구독283-8800





36년 만에 인구 10만 시대를 연 완주군이 2026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완주군은 '위대한 전진, 행복 경제도시 완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우며,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산업도시 삶의 질 전반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본격화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2026년은 완주 가 지역 성장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10만 완주, 수소·AI·문화산단으로 성장의 다음 단계를 연다

추격자를 넘어 선도자로, 2026년 완주의 전환점 문화·산업·행복이 연결되는 지속가능 성장 전략

미니인터뷰

유희태 완주군수

2026년 “완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의 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2026년을 “완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의 해”라고 규정한다. 그는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아닌 출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소와 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전략은 완주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며, 그 성과가 군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성장과 함께 행복의 가치를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정주 여건 개선, 주민자치 강화는 군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핵심 목표라는 설명이다.

유 군수는 “완주의 모든 정책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2026년에도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각오로 지속가능한 완주의 미래를 차근 차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인구 10만, 숫자가 아닌 구조의 변화

완주군은 2025년 5월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100,520명, 외국인 포함 시 105,355명을 기록했다. 전북 인구 4위 지자체로 도약한 것이다.

완주군은 인구 증가를 일시적 성과로 남기지 않기 위해 도시 구조 재편에 나선다. 삼례·봉동·용진 권역 연담화를 통해 도시 성장의 중심축을 만들고, 미니복합타운과 삼봉2지구 조지 조성, 신규 택지 개발을 추진해 정주 기반을 확충한다.

이는 주거·산업·생활 인프라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 수소와 퍼지컬 AI, 완주 경제의 미래 축

2026년 완주군 신년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산업이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조성 단계에 들어섰고, 국제수소거점소 설립과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완주군은 이를 통해 글로벌 수소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전북 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은 완주 경제의 또 다른 축으로 주목된다. 첨단 제조와 미래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 신산업을 실증·확산하는 거점으로 완주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를 첨단 복

합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과도 맞아 있다.

▲ 문화가 산업을 키우는 ‘완주형 모델’

완주군은 전국 최초이자 군 단위 유일의 문화선도산업단 조성이라는 차별화 전략도 이어간다. 청년문화센터 건립, 문화가 담긴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등 총 9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산업·청년·문화가 결합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일하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성장의 목표는 ‘행복지수 1위’

완주군은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군정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지 조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아동친화 정책 고도화, 주민참여형 자치 확대 등을 통해 행복도시 완주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ESG 행정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접목해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 특성에 따르면 4대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읍면별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 공모사업과 연계하고 권역별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역시 본격화해 명품 수변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